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11
위령성월

주 제:	“ 행복하여라. ”	“모든 성인 대축일 ”	2009년 11월 1일
복음 묵상:	[마태 5,1-12 ㄱ]	[묵시 7,2-4. 9-14]	[1 요한 3,1-3]

‘행복선언’ 과연 어떤 것이 참행복이고,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에 도달하고 느끼는 삶일까?
 오래전 어떤 피정자리에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나누었던 일이 있다. 그때 이야기로는 행복주체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을 했었다. 행복주체는 3인칭이 아니라 1인칭 단수, 즉 “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신 행복선언’이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나’, 하늘나라가 ‘나’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나’, ‘나’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나’, ‘나’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나’, ‘나’는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나’, ‘나’는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나’, ‘나’는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나’, ‘나’는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나’, 하늘나라가 ‘나’의 것이다.
 ...

기뻐하고 즐거워 하여라, ‘네’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행복은 크든 작든 그 주체가 내가 될 때 의미가 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소박한 내 행복에 비하랴? 여기에 참 행복의 길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길로 가다보면 참 행복에 다다른다.

위령성월 첫 날인 오늘은 희망의 날이다. 위령성월, 이 달은 희망의 달이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던 모든 성인에게서 희망을 보았고, 모든 위령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듯 희망을 담고 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 안에 그 희망을 담아 마음이 가난한 이로 살고, 슬퍼하는 이로, 온유한 이로, 자비로운 이로...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인천 김 현수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주 예로니모 단장님과 도미니카 자매님 한국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 정상준 마이클 형제님 10/20 (화) 2주간 여정으로 한국에 갑니다. 여행중에 주님과 함께 좋은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건강히 다녀 오십시오.
-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이 건강이 좋지못해 앞으로 한달 정도 미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건강을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청해 주십시오.
- 조정자 울리아나 자매님은 10/2 일 부터 10/30 까지의 여정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투병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성탄 성가 연습

- 11월 1일부터 교중 미사후 오후 연습을 시작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령성월 묘지 미사 및 위령성월 합동 연도

- 위령성월 묘지 미사: 11/7 (일) 오전 11시 . 장소: Gate of Heaven
- 합동 위령성월 연소: 11/15 (일) 교중 미사 후 장소: 본당

한인들을 위한 신앙 강좌

• 11/21(토)10:00AM-3:45 PM: 강사: 이관배 스테파노 신부님과 송영오 베네딕토 신부님

“11월 위령성월을 맞아 교회에서 신자에게 주는 특전”

11월 1일부터 11월 8일 까지 묘지를 방문하여 기도하면, 하루에 한 사람에게 전대사를 허락하십니다. 이 전대사는 죽은 이에게만 허락하시는데, 가족에게, 이웃에게, 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8일 동안 8번 얻을 수 있습니다.

대사:

1. 대사는 용서하다, 탕척하다는 뜻이니, 교황이나 혹은 주교가 성교회 보고에서 은사를 퍼내어 교우들의 죄보속을 면하여 주는 것입니다.
2. 죄보속 또는 죄의 잠벌이라 함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마땅히 받을 형벌이 두 가지 있으니, 첫째는 영벌이요 둘째는 잠벌입니다.. 범죄후 고해성사를 받거나 혹은 상등통회를 받으면 죄의 악은 사해지나, 잠벌은 남아 있어서, 현세에서나 혹은 연옥에서 기워 갚아야 하니, 지금 말하는 대사는 이 잠벌을 면하기 위하여 받는 것입니다.
3. 대사를 얻는 규칙:
 - 대사를 얻으려면 세가지 규칙을 지킬 것이니,
 - 은총지위에 있어야 하니, 대죄가 있으면 고해성사를 받거나 상등통회*를 받을 것이요,
 - 대사를 얻을 뜻을 두고, 교황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친다.



♡"위령성월에는.. "♡



무덤속에서본 하늘입니다

모든 사제는 3대의 위령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
3대의 미사 중 한 대는 예물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미사는 모든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셋째 미사는 교황의 지향에 따라 봉헌한다.
교회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중에 성총지위(고해 성사를 받고 영성체 한 상태)에 있는 이가 묘지를 방문하여 전대사를 받기를 청하며 교황의 뜻에 따라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하면 전대사가 주어지는데 이를 연옥 영혼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들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랑: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평화가, 그리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형제들에게 내리기를 빕니다(에페 6,23).”